

러시아의 외국인직접투자 현황과 시사점

1. 전세계 대 러시아 외국인직접투자 현황

□ 글로벌 경기침체 이전까지 대 러시아 투자는 활발

- 최근 고유가에 힘입은 경제성장이 계속되고 2008년에 발전산업이 민영화 되는 등 외국인 투자자에게 우호적인 정책이 시행되면서 러시아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(FDI)가 꾸준히 증가하였음.
- 러시아 중앙은행에 따르면 2007년 중 FDI 유입액은 551억 달러로 2006년의 297억 달러에 비해 86%나 증가함.
- 특히 2008년에 FDI 유입규모가 대폭 증가하였는데, 발전산업이 시장에 개방된 데다 FDI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천연자원 분야는 물론 자동차·부동산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임
- 최근 시행된 경제개혁 조치 중 발전산업 민영화 조치의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며, 이를 계기로 다수의 외국기업들이 러시아에 진출
- UNCTAD에 따르면 2008년 말 현재 러시아의 FDI 유입누계액은 2,140억 달러로 GDP의 12% 수준(선진국의 경우 동 비율은 약 25%)

□ 투자국 및 투자대상 지역의 편중 현상

- 투자국으로는 2008년 기준으로 사이프러스, 버뮤다, 네덜란드의 3개국이 전체의 62.6%를 차지하였는데, 사이프러스의 경우는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우회 투자가 대부분
 - 한국은 러시아 FDI 유입액의 0.5%를 차지함.
- 투자대상 지역으로는 모스크바와 수도권 지역이 전체의 52%를 차지하였고, 이어서 상뜨 페테르부르크(9%), 사할린(8%), Kaluga(3.5%) 등의 순
 - 모스크바에 대부분 공영기업의 본부가 있고, 사할린은 풍부한 석유·가스 매장지대이며, Kaluga 지역은 모스크바 변두리의 산업 지대이기 때문으로 분석됨.

□ 주요 투자국의 경기침체로 2009년 FDI 유입은 전년 대비 감소 추정

- 2008년 하반기에 시작된 금융시장 경색과 이로 인한 주요 투자국의 경기 침체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2009년의 FDI 유입액은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.
- 러시아 중앙은행은 2009년 1~9월 중 FDI 유입 실적을 전년동기 대비 44% 감소한 310억 달러로 추정

〈표 1〉 대러시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 추이

단위: 백만 달러

	2006	2007	2008	2009(1~9월)
은행부문	2,510	7,221	10,075	4,949
비은행부문	27,191	47,853	63,614	26,134
합 계	29,701	55,074	73,689	31,08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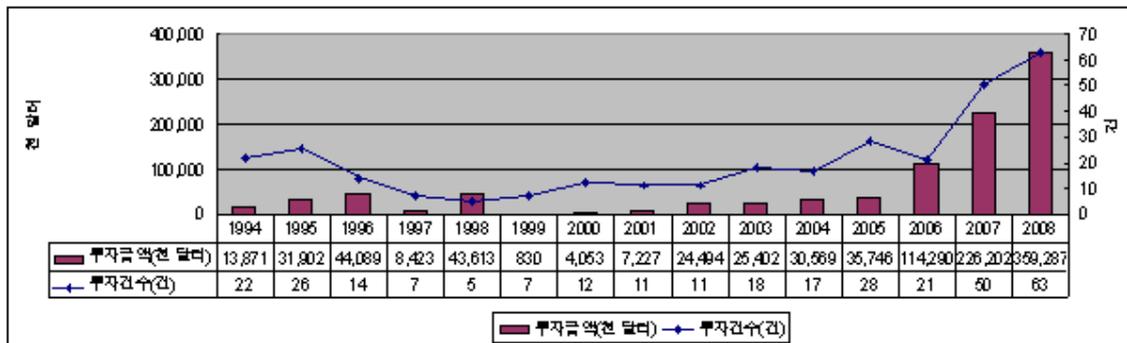
자료: 러시아 중앙은행(Bank of Russia).

2. 우리나라의 대 러시아 해외직접투자 현황

□ 우리나라의 대 러시아 FDI 누계액은 2009년 9월말 현재 371건, 13.4억 달러

- 우리나라 전체 해외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건수 기준으로 0.8%, 금액 기준으로 1.0% 수준임.

<그림 1> 우리나라의 대 러시아 해외직접투자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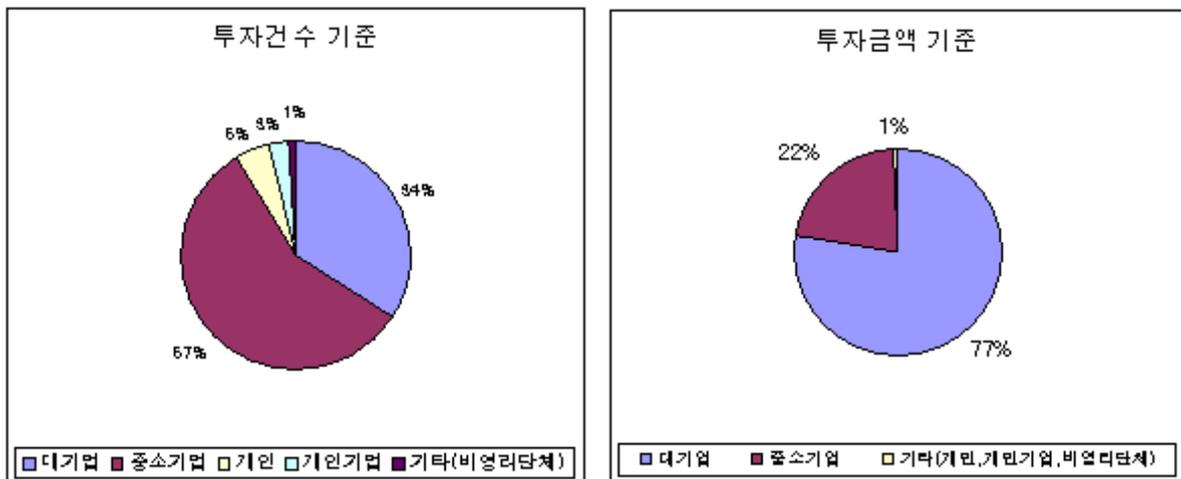
자료: 한국수출입은행.

- 2000년대 전반까지 활발하지 않았던 대 러시아 투자는 2006년에 연중 투자 금액이 1억 달러를 넘어서며 급증하기 시작하여, 2008년에는 3.6억 달러로 연간 최고 실적을 기록
 - 2006년에 투자 건수가 전년에 비해 감소하였음에도 투자금액이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은 대규모 투자 건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.
- 2009년 1~3분기에는 세계경기 침체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로 투자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50% 감소함. 그러나 대규모 투자 건으로 인해 투자금액은 8.7% 소폭 상승

□ 기업규모별: 대기업 중심

- 건수 기준으로는 중소기업 57%, 대기업은 34% 등으로 나타남. 이는 도·소매업 등 서비스 분야와 소규모 자동차 부품, 가정용품 등에 대한 중소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데 기인
 - 최근 3년간 기업규모별 투자건수 비중은 중소기업, 대기업, 개인, 개인기업 순
- 누계액 기준으로는 대기업이 대 러시아 총투자의 77%를 차지하며, 중소기업은 22% 수준임.
 - 최근 3년간 기업규모별 투자금액 비중은 대기업, 중소기업, 개인, 개인기업 순으로 변화가 없으나, 2009년 개인 투자금액¹⁾은 전년에 비해 크게 감소할 전망
- 건당 평균투자금액은 361만 달러이며, 기업규모별로 대기업은 817만 달러, 중소기업은 137만 달러
 - 우리나라 전체 해외투자의 건당 평균투자규모는 272만 달러로 대기업은 1,801만 달러, 중소기업은 145만 달러 수준

〈그림 2〉 기업규모별 대 러시아 투자 비중



자료: 한국수출입은행.

1) 2007년 개인 투자자의 투자금액은 185만 달러, 2008년 224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나, 2009년 3분기까지의 실적이 37만 달러에 그치고 있음.

□ 투자업종별: 제조업, 도·소매업 등에 주로 진출

○ 이들 분야에 대한 투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투자가 대부분

- 2007~09년 중 제조업 부문의 세부 투자분야는 대기업이 주로 식료품(코코아제품 및 과자류 등), 텔레비전, 자동차 제조업 분야에, 중소기업은 자동차·전자 부품 시장 등에 투자하였음.

〈표 3〉 업종별 대 러시아 투자 현황

단위: 건, 천 달러

투자 업종	건수	금액
제조업	125	724,281
도매 및 소매업	75	212,169
농업, 임업 및 어업	45	63,423
건설업	27	27,076
부동산업 및 임대업	22	60,428
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	19	1,644
출판·영상·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	14	37,880
운수업	11	11,233
숙박 및 음식점업	8	51,744
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	7	4,703
기타 ^{*)}	18	143,435
합 계	371	1,338,016

주: 금융 및 보험업, 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, 협회 및 단체, 하수 폐기물처리,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등 포함
 자료: 한국수출입은행.

- 동 기간 중에 도·소매업 분야에서는 대기업이 백화점 등 대형 종합 소매업, 중소기업은 의류 관련 도·소매업에 주로 투자하였고, 자동차 완제품 및 부품 시장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모두 진출해 있음.

3. 전망 및 시사점

□ 글로벌 경기의 회복이 전망되는 2010년 이후 FDI 유입도 증가할 것

- 2008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글로벌 경기침체로 상품가격이 하락하고 수출품에 대한 대외수요가 감소함으로써, 러시아와 같이 천연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FDI 규모가 크게 감소하였음.
- UNCTAD는 ‘세계투자전망조사 2009-11’에서 러시아, 카자흐스탄 등 CIS의 거대 경제국에 대한 FDI 유입이 향후 수 년간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, 2009년의 1~9월 통계도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하였음
- 그러나 2009년 4분기부터 세계적으로 경기 회복의 움직임이 서서히 나타남에 따라, 2010년에는 러시아를 포함한 개도국에 대한 투자 경색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.
- 러시아 주요 기업의 CEO 들은 다른 국가의 CEO에 비해 경제 전망에 긍정적이며 수익이 증가할 것으로 확신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.²⁾

□ 투자환경상 단점에도 불구하고, 높은 시장 잠재력이 투자 유인

- 1990년대 러시아의 FDI 유입은 만성적인 정치적 불안, 부패 및 관료주의, 높은 세율 등으로 인해 경제규모에 비해 적은 수준이었음.
- 러시아의 비우호적 투자환경과 정치적 불안에도 불구하고, 2000년대 들어 FDI 유입이 증가한 원인은 시장규모, 구매력 증가 등 시장 잠재력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됨.

□ 우리나라 기업의 대 러시아 투자 다변화 모색 필요

- 우리나라의 대 러시아 투자는 제조업과 도·소매업에 집중되어 있음. 그러나 전세계의 대 러시아 FDI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문은 에너지 산업이며, 우리나라가 원유·가스 등의 수요를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동 산업에 대한 투자가 상호 경제협력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됨.

2) PwC의 제12차 연간 글로벌 CEO 조사(2009) 결과

- 러시아의 에너지 정책은 여전히 자원민족주의에 토대를 두고 있으나, 2008년 경제위기 이후 해외 기업에 보다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우리에게 기회로 여겨짐.
- 또한 러시아가 연방투자자자문위원회 연례회의를 통해 외국기업들에게 투자 증대를 요청했던 첨단기술, 인프라 부문에 대한 진출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.

조사역 고안나 (☎ 02-3779-5654)

E-mail: anna@koreaexim.go.kr